



호랑이 ‘V11’ 준비는 끝났다

최형우

한승혁

KIA 정규시즌 전력 완성

‘호랑이 군단’이 정규시즌 모드로 긴장감을 높인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 안방에서 치른 시범경기 6경기에서 2승4패를 기록했다. ‘디펜딩 챔피언’ 두산을 상대로 첫 경기에서 7-4승을 거둔 KIA는 ‘막내’ kt에 2패를 당하는 등 3연패를 기록했다. 이후 구름 관중 앞에서 치른 SK와의 주말 2연전에서는 1승1패를 주고받았다.

승보다 패가 많았지만 승패는 큰 의미가 없는 시범경기. 지난 겨울의 성과와 숙제를 확인해 보는 6연전이었다.

부상 변수로 마운드 선발 경쟁체제에 변화가 생겼다.

투수

헥터·양현종·팻 던 1~3선발

홍건희·김윤동 등 4선발 어필

한승혁·박지훈 불펜 천군만마

마운드의 키로 꼽히던 김진우가 옆구리 염좌로 다시 전력 외 카드가 됐다. 연이은 부상 속에 올 시즌도 출발부터 뼈저리게 느껴 가장 유력했던 4선발 후보 김진우는 일단 경쟁에서 배제된다.

캠프 연습경기에서부터 선발로 준비했던 홍건희를 필두로 김윤동, 임기영, 고효

타자

최형우 시범경기 2홈런 활약

안치홍·김선빈 공·수 짜임새

‘4할타’ 신범수 안방 도전장

준 등이 선발 어필에 나선다.

1-3선발 자리는 확고하다. ‘엔트리 소동’으로 14일 등판이 무산됐던 헥터는 18일 SK전에서 4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신입 외국인’ 팻 던도 두 차례 마운드에 올라 한국 적응에 나섰다. 두산과 SK를

상대로 7.1이닝을 소화한 팻 던의 성적은 3피안타(1피홈런) 2볼넷 5탈삼진 3실점(2자책).

WBC 출전 여파로 뒤늦게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도 44개의 공을 던지면서 시동을 걸었다.

불펜에서는 박지훈과 한승혁이 눈에 띈다.

‘예비역’ 박지훈의 성적은 3경기 3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이다. 포크볼 위력은 여전했고 집착한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등 불펜의 천군만마가 됐다. ‘캠프 MVP’ 한승혁도 최고 156km의 직구를 뿌리면서 2이닝 퍼펙트, 4개의 탈삼진을 수확했다.

베스트 멤버와 백업진의 ‘격일제’ 운영 속에 타선의 구슬끼기도 진행됐다.

안치홍이 도루 도중 옆구리를 다친 게 아쉽지만 2017시즌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김선빈도 9번과 유격수 자리에 배치돼 공·수에서 짜임새를 더했다.

최형우도 강렬했다. WBC 출전으로 훈련량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첫 타석부터 화끈했다. 최형우는 14일 두산 니퍼트를 상대로 첫 타석, 초구에 홈런을 만들며 고향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지난 시즌 광주에서 홈런이 없었던 최형우는 시범경기 2호포까지 기록하는 등 새 안방 적응을 끝냈다. 캠프 연습경기에서 부진했던 김주형도 홈런 두 개를 터트리는 등 쉬어갈 틈 없는 타선의 또 다른 경쟁을 예고했다.

고졸 2년 차 신범수는 밀고 당기며 11타수 6안타, 0.455의 타율을 기록해 안방 경

쟁에 불을 붙였다.

버나디나에겐 고민 많은 한 주였다. 몸쪽 승부에 약점을 노출한 버나디나는 안타(4개)보다 많은 삼진(5개)을 기록했다. 그래도 4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등 선구안과 성실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KIA는 21·22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이어 23·24일 한화 원정 경기를 다녀온다. 그리고 NC와의 승부를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기태 감독은 남은 6연전을 통해 2017 시즌의 틀을 완성하고, 시즌 미리보기에 나선다. 이기는 상황, 지는 상황에 따라 선수진을 운영하고 작전도 구사하는 등 경기장의 긴장감을 높이지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인지 파운더스컵 준우승 한국 LPGA 4연승 불발

전인지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72·667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골라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의 전인지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에리아 주타누간(태국)과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전인지는 2016시즌에 LPGA 투어에서 우승 1회, 준우승 3회의 성적을 냈다. 최근 우승은 지난해 9월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이다. 준우승은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11개월 만이다.

대회 우승은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에게 돌아갔다. 3라운드까지 2타 차 단독 선두였던 노르드크비스트는 17번 홀(파3)까지 보기 없이 순항하다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이날 첫 보기를 기록했다. 그러나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기록, 최종합계 25언더파 263타로 우승을 확정했다. 우승 상금은 22만 5000달러(약 2억5000만원)다.

박인비와 유소연, 장하나 등 한국 선수 세 명이 21언더파 267타로 나란히 공동 5위에 올랐다. 최근 3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가던 한국 선수들은 4개 대회 연속 우승에는 실패했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달 호주오픈에서 장하나와 혼다 타일렌드 양희영, 이달 초 HSBC챔피언스 박인비 등이 연달아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20언더파 268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신인상 경쟁자인 박성현은 18언더파 270타로 공동 13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19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피겨 꿈나무들의 미소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 대회 남자 싱글에서 종합 5위를 차지한 차준환(왼쪽)과 여자 싱글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한 임은수가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MLB닷컴, 추신수 ‘지구촌 올스타’ 선정

지구촌 최고의 야구 축제 제4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도 이제 4강전과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목도나 누적 관객수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이번 대회를 맞아 대회 소식을 다루는 MLB닷컴이 20일 ‘지구촌 올스타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인원은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액티브 로스터에 맞춰 25명을 뽑았고, 25개국(지역)에서 대표선수 한 명씩만 호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한 ‘코리안 빅리거’ 가운데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추신수와 보비 톰슨(스코틀랜드)을 백업 외야수로 꼽으며 “정말 마음에 드는 외야수들이다. 추신수를 선택했다는 건 불펜 투수 김병현을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그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거론했다.

일본에서는 스즈키 이치로가 주전 우익수로 이름을 올렸고, 메이저리그 가운데 유일한 필리핀 국적인 보비 시나드는 불펜 투수로 선정됐다.

야수로는 이반 로드리게스(푸에르토리코)가 포수, 조이 보토(캐나다)가 1루수, 클렌 허버드(독일)가 2루수, 미겔 카브레라(베네수엘라)가 3루수, 산더르 보하르츠(네덜란드령 아루바)가 유격수, 앤드루 존스(네덜란드령 퀴라소)가 중견수, 배리 본즈(미국)가 좌익수, 찰리 데이비스(자메이카)가 지명타자, 에드거 렌테리아(콜롬비아)·호러스 클라크(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백업 포수는 안 고메스(브라질)가 각각 뽑혔다.

1선발은 페드로 마르티네스(도미니카 공화국), 2선발은 버트 블라일레네(네덜란드), 3선발은 루이스 티안트(쿠바), 4선발은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멕시코), 5선발은 데니스 마르티네스(니카라과)가 책임진다. 불펜은 그랜트 발포어(호주), 모드 라보스키(폴란드), 줄리오 보네티(이탈리아) 등이 선정됐고, 마무리 투수는 마리아노 리베라(파나마)다.

감독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브루스 보치다.

/연합뉴스

오승환 1이닝 퍼펙트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스프링캠프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에서도 완벽한 투구를 했다.

오승환은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챔피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년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에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 등판해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시범경기 첫 홀드도 챙겼다.

5-2로 앞선 7회말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카일 쿠비자를 2루 땅볼로 처리하며 상쾌하게 출발했다. 후속타자 셀 카즈마르는 좌익수 뜬공, 오지 엘비스는 1루 땅볼로 잡아냈다. 삼자범퇴를 기록한 오승

/연합뉴스

환은 8회 마운드를 케빈 시그리스트에게 넘겼다.

오승환은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을 13.50에서 9.00으로 낮췄다. 여전히 평균자책점은 높지만, 오승환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다.

오승환은 지난달 26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에 등판해 1이닝 동안 홈런 2방 포함 3안타를 내주고 3실점했다. 2017 WBC 한국 대표팀 합류 전 등판한 경기에서 오승환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WBC 서울라운드 2경기에서 등판해 3.1이닝 1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한국이 1승 2패로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오승환은 12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27일 KBO 미디어데이

2017 프로야구 개막을 알리는 ‘2017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27일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KIA 김기태 감독 등 10개 구단 감독과 KIA 김주찬-양현종, 두산 김재호-양의지, NC 손시현-임창민, 넥센 서건창-신재영, LG 류제국-오지환, SK 박정권-박희수, 한화 이윤규-이태양, 롯데 이대호-박세웅, 삼성 김상수-구자욱, kt 박경수-주권 등 각 구단을 대표하는 20명의 선수가 모여 올 시즌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선수들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블루스퀘어 내에 NEMO(네모)에서 미디어와 자유 인터뷰 시간을 갖고, 2시부터는 팬사인회와 포토타임을 통해 팬들을 만난다. 팬사인회 참가자에게는 선수들의 화보가 들어간 사인지가 제공된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SPOTV와 KBO 모바일 앱, 인터넷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생중계되며, 올 시즌 KBO 리그의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고 10개구단 감독들의 시즌 출사표를 들여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선수들에게 개막을 앞둔 소감과 올 시즌 각오를 듣는다. 선수들 간 질의응답 코너인 ‘플레이어스 토크’도 진행된다. 또한 각 팀의 우승 공약 선언도 준비돼있다.

‘2017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입장권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350명(1인 2매)에게 입장권이 돌아간다. 이 중 선착순 160명에게는 팬사인회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1인 1매)이 주어지며, 행사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구단 선글라스와 텀블러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